

2025. 2. 23.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11:12-15

제목: 사람, 사람, 사람

(표준새번역) 11: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ESV) 11:12 Then the people said to Samuel, "Who
is it that said, 'Shall Saul reign over us?' Bring
the men,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11:13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11:13 But Saul said, "Not a man shall be put to
death this day, for today the Lord has worked
salvation in Israel."

11:14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11: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new the kingdom."

11:15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곳 길갈에 계시는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1:15 So all the people went to Gilgal, and there they made Saul king before the Lord in Gilgal. There they sacrificed peace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there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rejoiced greatly.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누구냐!’면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히던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협박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 소식은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울에게까지 들어갔고, 사울은 소 두마리를 조각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녘에 나하스의 진영을 기습하여 나하스와 암몬 군대를 궤멸시킵니다. 야베스 백성을 구해낸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 대한 세가지 메시지

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는,

✓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동시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삼상 10:27,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자기 기준에 비추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과 감정에 맞으면 옳고, 선하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틀렸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삼상 10:27a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1 Samuel 10:27a But some worthless fellows said, "How can this man save us?" And they despised him
and brought him no present

본문 11:12,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11: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ESV) 11:12 Then the people said to Samuel, "Who is it that said, 'Shall Saul reign over us?' Bring the
men,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며, 악을
행하면서 상대방을 악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모습을 정치에서 자주 보실 수 있고, 전쟁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잠 21:2a,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입니다.

(표준새번역) 잠언 21:2a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
(ESV) Proverbs 21:2a Every way of a man is right in his own eyes, ...

요 7:24,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대방의 가치와
등급을 매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경험을
기준 삼아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7:24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ESV) John 7:24 Do not judge by appearances, but judge with right judgment."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판단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실망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도 죄인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하십시오. 아내가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도 실수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안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성인이 되신 후에는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십시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마십시오. 돈 거래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친구따라 강남가는 수준을 넘어 친구따라 마약도 하고, 친구따라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여러분의 지도 교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교수 여러분 학생들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마십시오. 목사를 너무 높이거나 무조건 목사말이라면 다 좋은 것으로 받지 마시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은 약속을 깨기 쉽고, 사람은 상처 주며, 사람은 견고하지 않고, 사람은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울’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3 절, 사울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십니다.

11:13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11:13 But Saul said, "Not a man shall be put to death this day, for today the Lord has worked salvation in Israel."

하나님은 14 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길갈로 인도하시고, 사울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십니다.

11:14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11: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new the kingdom."

사람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와 두번째 메시지는 충돌합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실수하고, 어설프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하며,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 15:16,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게 하려는 것이다.
(ESV) John 15:16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sh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should abide, so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it to you.

마 23:12,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즉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3:12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ESV) Matthew 23:12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고전 3:9,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ESV) 1 Corinthians 3:9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부족하고 어설프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피우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상처와 악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죄성이 만들어 내는 공백, 실수, 부족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워나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사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하십니다.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한 마디 하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아기가 걷기라도 하면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난리입니다. 애가 종이 대충 잡고

낙서같이 끄적거린 것을 선물이랍시고 갖다주면 그게 그렇게 예뻐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하듯이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 절, 사무엘의 인도로 사람들은 길갈로 갑니다.

11:14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11:14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Come, let us go to Gilgal and there renew the kingdom."

15 절,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길갈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1:15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곳 길갈에 계시는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1:15 So all the people went to Gilgal, and there they made Saul king before the Lord in Gilgal. There they sacrificed peace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there Saul and all the men of Israel rejoiced greatly.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Coram Deo, 신전 의식)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구절 중 하나로,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ESV) 1 Corinthians 10:31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행동의 내용)보다, 왜, 무엇을 위하여(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표준새번역) 골로새서 3:17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ESV) Colossians 3:17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 정리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도 사람이고, 사람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만 없으면 세상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사람만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사람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Coram Deo!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
-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